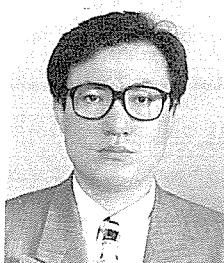


교사·전문가 등 회원 3천여명의 연구모임

전국학교컴퓨터교육연구회 (NASEC)

컴퓨터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교 사회의 정보화 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91년 창립된 전국학교컴퓨터교육연구회는 3천여명의 회원이 전국 12개 시·도지회를 중심으로 8회의 컴퓨터교육과 6회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펴오고 있다.



김현철

<총괄간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설립배경〉 컴퓨터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관련활동을 통하여 학교 컴퓨터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학교 사회의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의 현장교사, 교육 행정가, 교수, 연구개발요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전국 수준의 학술연구단체인 본 연구회의 창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1년 6월 5일, 전국 시·도에서 '교원 컴퓨터 연수 교재' 심의 작업을 위해 모인 컴퓨터교육담당 교원들 사이에서, 학교 컴퓨터교육을 위한 연구와 실천의 효과적 연계와 전국적인 정보 교류 통해서 연구회 결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회의 창립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착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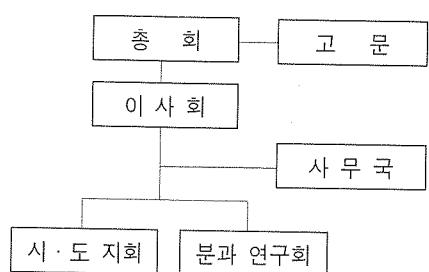
초대회장에 오진석박사 추대

6월 20일에는 1백50여명의 창립 발기인을 중심으로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창립준비위원장에 당시 한국교육개발원 컴퓨터교육연구센터 소장인 오진석 박사를 추대하고, 지역조직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학, 교육부)와 전문분과위원회(위원장 박성익, 서울대)를 두기로 하였다. 그해 7월 9일에는 제2차 창립총회 준비위원회가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연구회 운영방안 및 창립회원 모집 방안이 협의되었다. 같은해 9월 9일 열린 제3차 창립총회준비위원회에서는 회장단과 이사진을 구성함으로써, 본 연구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본 연구회의 초대 회장은

오진석 한국교육개발원 컴퓨터교육연구센터소장, 부회장에 송재환 서강국민학교장, 유희준 호계중학교장, 공정택 덕수상업고등학교장, 박성익 서울대학교 교수, 김영학 교육부연구관이 추대되었다.

또한 9월 18일 창립이사회에서는 10월 5일 덕수상업고등학교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하고, 정관을 최종 심의한 뒤, 1991년 사업으로 연구회소식지, 연구회요람, 학술지 등의 발간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서 동년 10월 5일, 서울 덕수상업고등학교 강당에서 전국적으로 약 8백여 창립회원의 뜻을 모아 '전국학교컴퓨터교육연구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Computing)' 창립총회가 열렸으며, 각계 각종의 컴퓨터교육 관련 인사 4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인준, 본 연구회 창립회원일동 명의의 창립선언문 낭독, 조규향 교육부차관의 축사와 정범 모 서울대학교 교수의 「컴퓨터, 인간, 그리고 교육」이라는 기념강연이 있었으며, 창립총회에서 인준된 본 연구회의 조직표는 다음과 같다.



창립 당시 제정되었던 정관은 1991년 12월 23일, 91년 정기이사회를 통하여 관련기관(업체)에 대한 회원가입 문호의 개방 및 입회규정 신설, 당연직 이사의 선임방법 보완, 회비 규정의 보완 등에 대한 개정이 의결됨으로써 1차 개정되었다.

1993년 11월 19일의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는 본 연구회의 제2기 임원선출이 있었으며, 신임회장에는 김영학 장학관(현 국립교육평가원 전산실장)이 선임되었고 사무국장에는 손병길 책임연구원(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공학연구부장)이 선임되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의 회원수의 증가 상황을 보면, 창립 당시인 1991년 10월 5일 7백92명에서, 1992년 1월 10일 1천32명으로 증가하여 창립 3개 월만에 회원이 1천명이 넘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였으며, 1992년에도 5백15명이 신규 가입함으로써 199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천5백47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 9월 30일 현재 회원수는 3천1백62명에 이르고 있다.

회원 3천여명 전국 조직으로

〈전국 시·도지회 결성〉 본 연구회가 창립된 이후 전국 시·도지회의 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전국 시·도지회는 부산지회(1991년 10월 25일 창립), 광주지회(1991년 12월 20일 창립)가 결성된데 이어 1992년에는 경남지회, 전남지회, 충북지회, 경기초등지회, 경기중등지회, 충남지회, 대전지회가 창립되었으며, 1993년에는 서울초등지회, 인천지회, 대구지회가, 1995년에는 전북지회가 창립되었고 경기초등·중등지회가 통합됨으로써 올



▲94년 8월 19일 충북지회 주관으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학술세미나에서 손병길사무국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9월 30일 현재 총 12개의 전국 시·도지회가 다음과 같이 결성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 ▲ 서울초등지회(회장 : 이종화 연신국민학교 교장)
- ▲ 부산지회(회장 : 정규창 부산직할시교육청 장학사)
- ▲ 대구지회(회장 : 신우섭 경혜여자중학교 교감)
- ▲ 인천지회(회장 : 최형표 동인천고등학교 주임교사)
- ▲ 광주지회(회장 : 이형기 광주시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 ▲ 대전지회(회장 : 이석범 한밭여자상업고등학교 주임교사)
- ▲ 경기지회(회장 : 이구남 경안국민학교 주임교사)
- ▲ 충북지회(회장 : 나세웅 충북상업고등학교 교장)
- ▲ 충남지회(회장 : 이세환 연산상업고등학교 주임교사)
- ▲ 전북지회(회장 : 양건정 부안상업고등학교 주임교사)
- ▲ 전남지회(회장 : 전동렬 담양창평국민학교 주임교사)
- ▲ 경남지회(회장 : 박한철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소식지 발간, 학술세미나 열어

〈주요 활동 내역〉 본 연구회의 출판 활동으로는 컴퓨터교육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전국학교컴퓨터교육연구회 소식 1호」를 1991년 10월 5일 1천부를 발행하여 회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이어서 11월 5일에 소식지 2호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1995년 9월 30일의 16호까지 각각 3천부씩 발행하여 회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앞으로도 「전국학교컴퓨터교육연구회 소식」은 컴퓨터교육 연구·개발 소식지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소식지 이외에, 본 연구회 학술지로서 「컴퓨터교육연구」 제1권 제1호를 1992년 4월에, 제2권 제1호를 1995년 2월에 발간하여 회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본 연구회는 1992년 1월 24일 제1회 컴퓨터교육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1995년 8월 18일 제8회 컴퓨터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1994년 8월 19일의 제6회 학술세미나부터는 전국 시·도지회의 활성화와 지역 학교 컴퓨터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충북·대구·충남지회의 주관으로 지역 중심대

학에서 전국의 회원과 컴퓨터교육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금까지 개최된 본 연구회의 컴퓨터교육 학술세미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정 개발방안'을 건의하였으며, 1994년 11월 29일 교육부장관과 전국 11개 교육대학총장에게 '교육대학 컴퓨터교육과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회는 공고 교육과정 개발위원회의 의뢰로 공고 교육과정 개발에 대

까지 다양한 학술활동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관련기관에 여러 차례의 건의도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교육 현장에서 컴퓨터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름진 토양을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멀티미디어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국가정보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구축,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체계 혁신(System Reengineering), 열린교육사회의 건설을 위한 교육개혁 및 국가교육종합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al Total Information System)의 구축 등의 급격한 변화에 우리의 학교와 구성원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체제의 대비에 주력할 것이며, 지역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컴퓨터교육 관련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학술세미나 및 학술지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소개할 방침이다.

또한, 본 연구회는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총론(안) 발표에 즈음하여 1991년 11월 1일,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컴퓨터교육강화 건의서를 제출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및 주안점의 하나가 컴퓨터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여건임을 부각시켜 줄 것, 컴퓨터를 공통 필수 과목으로 설치하여 줄 것, 각론 개발을 전국학교컴퓨터교육연구회 등 컴퓨터교육 연구·개발 경험이 많은 기관에 맡겨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제6차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각 교과 학회의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본 연구회 오진석회장이 18개 교과 연구회 회장과 함께 1991년 11월 29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교육관련 본 연구회의 건의는 1992년에도 계속되었다.

본 연구회는 1992년 2월 10일 교육부장관에게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발에 있어서의 컴퓨터교육 관련 교육

해 원고집필 및 심의형태로 협조하였다. 이외에도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91 교육용 S/W 활용사례 발표회 및 전시회를 후원하였으며, 1992년부터 현재 까지 본 연구회는 제1~4회 '전국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을 응모자 자문 형식 및 상담형태로 후원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정보체계화 노력

〈향후 활동 방향〉 본 연구회는 창립 이후 현재까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공학연구본부(구 컴퓨터교육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교육관련기관 및 대학, 연구소, 업체 등의 지원과 후원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본 연구회 활동 방향은 학교 컴퓨터 교육의 정착, 교육정보화체계의 대비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컴퓨터교육의 정착 및 내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하여 본 연구회는 1992년부터 1994년

☞ 연락처 (NASEC 사무국)

- 사무국장 : 손병길, 총괄간사 : 김현철
- 주소 :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내
- 전화 : (02)576-7107, 579-9078
- 전송 : (02)529-1918, 574-5366
- 통신(하이텔, 천리안) : NASEC